

## 왕생 발원문

극락세계에 계시어 중생을 이끌어  
주시는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  
하옵고, 아미타불의 거룩하신  
명호를 정성으로 수지하여 극락  
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하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일평생을 살다가 세연을 다하신  
김춘복 영가의 업장은 소멸되고

선근은 자라나고, 번뇌는 없어지고  
무명은 사라져서, 원각의 묘한  
마음 뚜렷하게 열리웁고, 청정한  
지혜의 광명이 그대로 나타나  
지이다.

일생에 사사로움 없이 후덕하여  
아름다운 공덕행을 쌓았으니,  
화신불의 영접 받아 아미타불  
극락정도에 왕생하리라.

이승의 미련은 모두 떨어  
버리시고 아미타 부처님 연꽃에

태어나서 무생법인의 법락을  
편안케 누리소서.

태어났다 죽는 것은 모든 생명의  
이치이며, 제행은 무상이요 생자는  
필멸이라.

상품상생 하온 뒤에 불보살을  
뵈옵거든 미묘한 법문 듣고  
수기를 친히 받아 온갖 공덕을  
원만하게 이루어지이다.

인연 맺은 사람들이 아미타불의

깊은 가피로 극락왕생을 발원하  
오니, 다음 생에도 부처님 인연  
맺어 온갖 중생에게 베풀어  
주소서. 삼계유정들도 모두  
제도하여 일체 종지를 이루어  
지이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